

1963年度企業經營分析

<內 容>

- | | |
|---------------|--------------|
| 1. 一般動向 | 2. 收益狀況 |
| 3. 利益剩餘金処分 | 4. 財務構成 |
| 5. 投資動向과 資金調達 | 6. 生産性과 賃金水準 |
| 7. 附 表 | |

1. 一般動向

1963年の企業活動을 概觀하면 年度中 鉍工業 및 電氣業은 5個年計劃의 進陞에 따른 活潑한 設備投資와 外援規模의 縮少 및 이에 따르는 外換準備의 惡化展望等 要因이 「인플레이션-드」 (Inflationary mood)를 더욱 刺戟하여 在庫投資를 促進케 함으로써 大幅的인 經營規模의 擴大를 보아 比前年 總資本額은 64.5% 売出額은 39.5% 各各 增加하였으며 特히 電氣業은 1962年度에 實施를 본 資産再評價에 依한 評價益의 資本轉入을 主因으로 比前年 136.0%라는 異例的인 資本增加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成長過程을 걸어온 鉍工業 및 電氣業의 經營活動을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年度中에는 첫째로 5個年計劃 第2次年度事業을 推進하기 爲한 新規基幹産業의 建設을 비롯하여 外資導入의 進陞과 輸出 및 輸入代替産業育成策을 反映한 既存施設의

改替 또는 擴張 社會間接資本의 補充等 設備投資面의 擴大要因이 다른 어느때보다 컸었고 둘째로 援助減縮과 保有外換의 激減에 따른 展望의 不透明을 反映하여 原資材 또는 製品에 對한 在庫投資氣運이 高調됨으로써 企業經營規模의 2大指標인 總資本額과 売出額의 增加率은 前年の 그것보다 훨씬 높은 增勢를 示顯하였다.

그러나 企業活動의 總決算인 純利益金の 推移는 이와같은 売出額의 增加率보다 管理部門의 費用增大率이 커짐으로써 一般的으로 比前年 增大率의 鈍化傾向을 免치 못하였고 특히 그중에서도 鉦業과 電氣業等은 상당한 減少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兩部門이 모두 料金統制로 因하여 売出額을 現實的水準까지 올리지 못한 反面支出面에 있어서는 鉦業部門은 採鉦部門의 探化에 따라 管理費用이 遞增되고 또 電氣部門에 있어서는 發電 및 配電施設 補充에 따라 人件費와 減價償却費가 增加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財務構成의 慢性화된 不均衡現象은 그間 2次에 걸친 資産再評價 및 資本充實化의 努力으로 많이 是正되었으나 아직도 設備投資에 따르는 膨大한 資金需要를 内部資金만으로 調達하지 못함으로써 外部資金은 的연히 主要資金源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設備의 補充에 依한 勞動裝備率의 高度化와 技術革新을 背景으로 勞動生産性이 相當히 向上되었고 賃金水準도 若干 引上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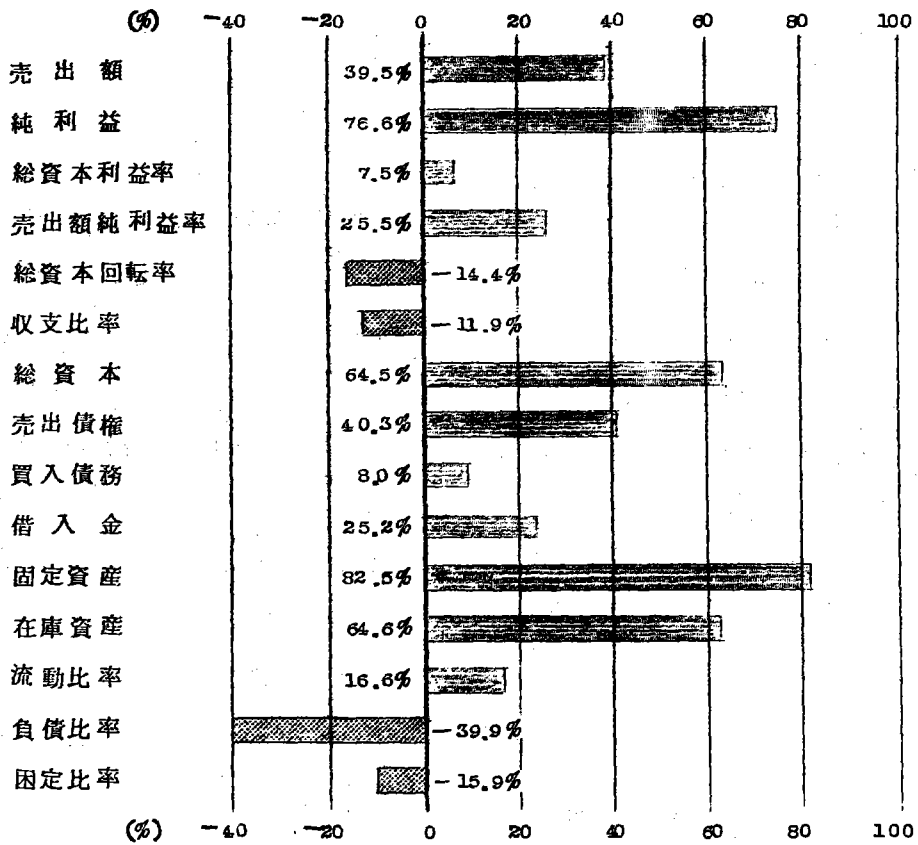
以上을 要約하면 年度中 財産再評價差益의 資本轉入과 資金需要의 膨脹에 따른 增資等を 背景으로 財務構成의 是正이 顯著했으며 活潑한 設備投資는 經營規模의 伸張을 가져옴으로써 企業安全

性的 確立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 한편 施設의 代替 및 擴充과 구준한 經營管理改善의 努力은 能率增進을 誘導하여 勞動 生産性的 提高에 投影되었으나 財産再評價에 依한 帳簿價格의 修正結果 늘어난 資金需要規模의 相殺作用으로 말미암아 大體로 前

(表 1) 主要經營指標의 推移

(前年度對比增減率)

(製造業)



註: 1. 収支, 固定, 負債比率은 (-)가 發展傾向을 表示

2. 売出債權, 買入債務, 借入金, 固定資産, 在庫資産은 構成比增減을 表示

年보다 收益性의 鈍化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同期間中 우리나라 企業은 持續的인 成長을 圖謀하기 爲한 基盤造成 即 安全性的 改善에 뚜렷한 進展을 보였을뿐 아니라 前記한 經過期에 있어서도 收益性向上을 爲한 부단한 努力이 傾注됨으로써 「前進的인 態勢確立」을 成就하였다.

2. 收益狀況

(1) 売出額과 純利益

① 売出額

年度中 製造業의 売出額은 生産增加와 物價騰貴를 反映하여 前年水準(30.8%)을 上廻하는 39.5%의 增加를 보였고 鈹業은 前年水準(13%)의 3배가 되는 39.7%라는 異例的인 売出額增加를 나타내었으나 電氣業만은 8.5%의 낮은 增加率을 示顯하였다. 그러나 同期間中の 物價騰貴率(都売物價指數 20.6%增)을 考慮한다면 實質的인 上昇率은 이보다 低率이 될 것이다.

이번 期間中 大部分의 産業에 있어서 売出額의 上昇傾向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鈹業部門의 土砂石의 300.3%를 先頭로 製造業部門의 印刷 및 出版(239.1%) 金屬製品(123.5%) 食料品(104.4%) 등이 顯著하였고 反面에 機械(-70.91%)를 비롯하여 土石 및 유리製品(-21.7%) 電氣機器(-21.1%) 家具 및 裝置品(-11.5%) 등은 売出額의 減少를 보아 業種間에 甚한 起伏을 나타내었다.

(表 2) 売出額의 增減狀況

| | (前年度對比) (%) | | |
|-----|-------------|------|------|
| | 1963 | 1962 | 1961 |
| 製造業 | 39.5 | 30.8 | 17.5 |
| 鈹業 | 39.7 | 13.0 | 12.0 |
| 電氣業 | 8.5 | | |

② 純利益

製造業의 純利益은 經營規模(売出額)의 擴大에 따라 76.6%가 增加하였으나 鋁業 및 電氣業에 있어서는 売出額은 少幅의 增加에 不過한 反面 施設增加에 따른 費用增大로 오히려 前年보다도 各各 2.6% 25.4%의 減少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純利益增減의 原因究明을 爲해 企業活動의 部門別動向을 보면 먼저 製造業은 売出原價(83.57%)가 前年보다 1.07% 減少되었으나 一般管理와 販賣部門(11.16%)에서는 반대로 5.48%의 費用增大를 가져왔고 鋁業에서는 売出原價(85.82%)는 前年에 比하여 4.03%의 減縮을 보였으나 一般管理와 販賣費(11.73%)가 42.87% 增加하였으며 電氣業에 있어서도 施設增大에 따르는 費用增大로 같은 現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鋁工業을 비롯한 業種全般에 걸쳐 營業外活動의 不均衡狀態가 前년에 이어 더욱 擴大되었다. 즉 製造業은 總體的構成比面에서 營業外收益이 2.63% 營業外費用이 5.27% 鋁業은 營業外收益 1.80% 營業外費用 2.45% 電氣業은 營業外收益 2.15% 營業外費用 5.68% 로서 營業外活動의 不均衡이 前年보다 더욱 擴大되었다.

(表 3) 純利益의 增減狀況
(前年度對比) (%)

| | 1963 | 1962 | 1961 |
|-----|--------|-------|------|
| 製造業 | 76.6 | 122.4 | 22.0 |
| 鋁業 | △ 2.6 | 84.1 | 37.7 |
| 電氣業 | △ 25.4 | -- | -- |

(表 4) 收益・費用構成의推移

| | 製造業 | | | 鉦業 |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總收益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賣出額 | 97.37 | 98.28 | 97.76 | 98.20 | 97.00 | 99.57 |
| 營業外收益 | 2.63 | 1.72 | 2.24 | 1.80 | 3.00 | 0.43 |
| 總費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賣出原価 | 83.57 | 84.47 | 79.52 | 85.82 | 89.42 | 79.75 |
| 一般管理外 販賣費 | 11.16 | 10.58 | 14.45 | 11.73 | 8.21 | 17.29 |
| 營業外費用 | 5.27 | 4.95 | 6.03 | 2.45 | 2.37 | 2.96 |

| | 電氣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總收益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賣出額 | 97.85 | 98.18 | 98.06 | 96.24 | 96.26 | 98.74 |
| 營業外收益 | 2.15 | 1.82 | 1.94 | 3.76 | 3.74 | 1.26 |
| 總費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賣出原価 | 78.00 | 77.11 | 76.00 | 92.34 | 63.74 | 21.13 |
| 一般管理外 販賣費 | 16.32 | 19.45 | 19.82 | 6.13 | 29.41 | 77.70 |
| 營業外費用 | 5.68 | 3.44 | 4.18 | 1.03 | 9.85 | 1.18 |

(2) 資本利益率

① 總資本利益率

收益狀況을 總體的으로 判断하는 指標인 總資本利益率($\frac{\text{純利益}}{\text{總資本}} \times 100$)을 보면 年度中 製造業은 9.77%로서 前년에 이어 持續的인 上昇을 보인 反面에 鉦業은 6.95%로서 前年보다 低下됨으로써 鉦工業間의 隔差가 보다 顯著해졌으며 電氣業 또한 純利益의 增加가 總資本의 增加率을 따르지 못하여 1.53%의 最下位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建設業은 9.05%로서 「서비스」業(8.58%)과 함께 製造業의 水準에 接近하고 있으며 都小売業은 異例적으로 17.62%의 高率을 보이는가 하면 運輸業은 1.88%의 低率을 나타내고 있어 産業間에 資本收益力의 큰 差等を 엿볼 수 있다.

規模別(製造業에 限함)로 보면 中小企業7.83% 大企業6.95%로서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高率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年度中 比較的 높은 收益率을 나타낸 業種은 金屬의 21.74%를 비롯하여 都小売業(17.62%) 食料品(15.71%) 第1次金屬(15.48%) 靴類 衣服 및 裝身品(14.97%) 化學 및 化學製品(14.38%)等이고 反對로 收益性이 低調했던 業種은 電氣業의 1.53%를 비롯하여 運輸業(1.88%) 輸送用機器(4.17%) 石油 및 石炭製品(4.21%) 皮革 및 皮革製品(4.27%)等이다.

(表 5) 總資本利益率

| | (%) | | |
|------|-------|------|-------|
| | 1963 | 1962 | 1961 |
| 製造業 | 9.77 | 9.09 | 5.31 |
| 釷業 | 6.95 | 9.31 | 11.12 |
| 電氣業 | 1.53 | 4.83 | |
| 建設業 | 9.05 | - | |
| 都小売業 | 17.62 | - | |
| 運輸業 | 1.88 | - | |
| 서비스業 | 8.58 | - | |

② 売出額純利益率과

總資本回轉率

資本利益率(總資本利益率= 売出額純利益率 × 總資本回轉率, $\frac{\text{純利益}}{\text{總資本}} = \frac{\text{純利益}}{\text{売出額}} \times \frac{\text{売出額}}{\text{總資本}}$)을

構成하는 두 要素 即 收益 關聯指標인 売出額純利益率과 總資本回轉率을 보면 年度中 製造業은 売出額純利益率이

9.11%의 高率을 나타내었음에도 不拘하고 資本의 非效率의인 利用으로 말미암아 資本回轉率이 1.07回轉으로 鈍化됨으로써 總

資本利益率은 前年보다 약간 上昇된 9.77%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 鉦業은 製造業의 境遇와는 對照的으로 總資本回轉率(1.27 回轉)은 向上되었으나 売出額利益率(5.47%)의 激減으로 因하여 總資本利益率은 前년에 比하여 25.40%나 減少한 6.95%의 低水準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電氣業은 利幅의 縮小와(売出額純利益이 30.41%減少) 資本利用度의 不振(資本回轉率이 55.88%의減少)이 겹쳐 總資本利益率이 1.53%로 大幅 減少되어 最下位 產業으로 轉落되었다. 그밖에 建設業은 運輸業과 함께 売出額純利益率이 5.04%와 4.80%로서 最下位를 占하였고 總資本回轉率은 建設業(1.79 回轉) 都小売業(1.78 回轉)이 모두 製造業 鉦業을 凌駕하는 高率을 차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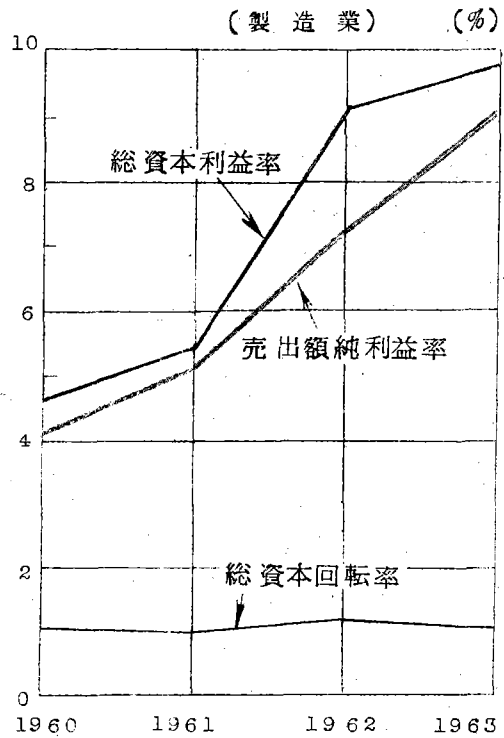
規模別로 보면 中小企業은 売出額純利益率이 6.58% 總資本回轉率은 1.19 回轉이며 大企業은 売出額純利益率이 9.42% 總資本回轉率 1.07 回轉으로서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比하여 利幅은 컸으나 資本의 利用度는 보다 非效率的이었다.

다음에 이를 業種別로 보면 売出額純利益率에 있어서는 化學 및 化學製品 16.32%를 비롯하여 金屬製品(14.80%) 第1次 金屬(14.25%) 등이 높고 非金屬 2.89%를 비롯하여 石炭(3.57%) 石油 및 石炭製品(3.71%) 등이 低率이다. 그리고 總資本回轉率에 있어서는 石油 및 石炭製品 3.01 回轉을 비롯하여 靴類 衣服 및 裝身品(2.51 回轉) 非金屬(2.37 回轉) 등이 高率이고 電氣業(0.15 回轉) 運輸業(0.39 回轉) 皮革 및 皮革製品(0.35 回轉) 輸送用機器(0.67 回轉) 土砂石(0.68 回轉) 등이 低率이다.

(表 6) 売出額純利益率

| | (%) | | |
|-------|------|-------|------|
| | 1963 | 1962 | 1961 |
| 製造業 | 9.11 | 7.26 | 5.11 |
| 鉱業 | 5.47 | 7.85 | 9.36 |
| 電氣業 | 9.94 | 14.29 | |
| 建設業 | 5.04 | - | |
| 都小売業 | 9.89 | - | |
| 運輸業 | 4.80 | - | |
| サービス業 | 9.85 | - | |

(表 7) 収益關聯指標の推移



(表 8) 総資本回転率

| | (回転) | | |
|-------|------|------|------|
| | 1963 | 1962 | 1961 |
| 製造業 | 1.07 | 1.19 | 1.05 |
| 鉱業 | 1.27 | 0.34 | 1.19 |
| 電氣業 | 0.15 | - | |
| 建設業 | 1.79 | - | |
| 都小売業 | 1.78 | - | |
| 運輸業 | 0.39 | - | |
| サービス業 | 0.87 | - | |

(3) 收支比率

収益性の安定度を測定하는

指標인 收支比率 $(\frac{\text{総費用}}{\text{総収益}} \times 100)$ 을

보면 年度甲 製造業은 前년에 이어 継続的인 遞減傾向을 나타내어 91.12%로 安定的이었으나 鉱業은 1.24%의 費用増大를 이트켜 94.63%로서 製造業보다도 利益圏(Profit area)이 적어졌다. 그리고 電氣業은 前年보다 4.31%의 費用増大로 因하여 収益性安定化를 爲한 基盤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規模別로 보면 中小企業 93.70% 大企業 90.60%로서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利幅이 크며 經營의 能率向上을 圖謀하고 있다. 그리고 利益圈이 比較的 큰業種은 化學 및 化學製品 83.93 %를 비롯하여 金屬製品 (85.88%) 第1次金屬 (86.01%) 등이며 反面에 電氣機器 (99.31%) 非金屬 (97.15%) 石炭 (96.48%) 石油 및 石炭製品 (96.30%) 등은 收益性的 安定化를 期하지 못하여 高率을 나타내었다.

(表 9) 總費用對總收益比率

3. 利益剩餘金処分

(%)

(1) 内部留保

企業의 最終成果인 利益剩餘金이 社外로 放出되지 않고 企業資本의 充實化를 目的으로 企業内部에 留保되는 内部留保의 程度를 보면 製

| | 1963 | 1962 | 1961 |
|------|-------|-------|-------|
| 製造業 | 91.12 | 92.87 | 94.63 |
| 鈹業 | 94.63 | 92.39 | 90.68 |
| 電氣業 | 90.28 | 85.97 | |
| 建設業 | 95.05 | — | |
| 都小売業 | 90.48 | — | |
| 運輸業 | 95.38 | — | |
| 서비스業 | 90.27 | — | |

造業은 64.24%로서 豫想外로 健全한 財務政策을 反映하고 있으며 그중 法的拘束力을 갖는 利益準備金은 8.98%라는 低率인데 反하여 企業自體의 任意的인 法定으로 積立하게 되는 任意積立金은 55.26%로서 상당히 큰 比重을 占하고 있어 企業活動의 強力한 潜在力을 形成하고 있다. 鈹業은 内部留保 87.22%로서 製造業보다는 高率이나 利益準備金의 比重이 큰 대신 任意積立金은 오히려 製造業보다 낮아 相異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電氣業은 13.69%로서 이번 調査對象業種中 最下位를 차지하였다. 이는 利益剩餘金이 적었음에도 他企業體와 同率의 配當을 한데 緣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都小売業 建設業 「서비스業 運輸業은 各各 90.7% 37.9% 25.1% 21.6%를 나타내었다.

規模別로 보면 中小企業 44.70% 大企業 65.72% 로서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上位에 있다. 한편 이比率이 比較的 높은 業種은 石炭의 99.17%를 비롯하여 고무製品 (81.94%) 金屬製品(81.53%) 皮革 및 皮革製品 (78.64%) 化学 및 化学製品 (78.52%) 輸送用 機器 (76.32%) 等이다.

(2) 社外配分

利益剩餘金の 社外配分을 보면 製造業은 12.73%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配当금이 11.30% 로서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鈹業은 社外配分이 3.83% 로서 相当히 低率이며 電氣業은 84.85% 로서 全産業中 最高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前述 한바와 같이 無理한 配当政策에 基因한 結果라 할 수 있다. 其他 建設業 都小売業 運輸業「서비스」業等은 各各 56.3% 26.39% 55.26% 1.78% 를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法人税充當金은 業種全般이 10 ~ 20%의 높은 水準을 보여주고 있다.

(表 10) 利益剩餘金處分狀況

(%)

| | 製 造 業 | | | 鈹 業 | 電氣業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中小企業 | 大企業 | 全製造業 | | | | | | |
| 內 部 留 保 | 44.70 | 65.72 | 64.24 | 87.22 | 13.69 | 37.90 | 60.70 | 21.62 | 25.10 |
| 利 益 準 備 金 | 7.20 | 9.11 | 8.98 | 48.37 | 9.18 | 9.81 | 7.88 | 8.09 | 6.46 |
| 任 意 積 立 金 | 37.44 | 56.61 | 55.26 | 38.85 | 4.51 | 28.09 | 52.82 | 13.53 | 18.64 |
| 在 外 分 配 | 12.47 | 12.74 | 12.73 | 3.83 | 84.85 | 5.63 | 26.39 | 55.26 | 1.78 |
| 賞 与 金 | 2.42 | 1.35 | 1.42 | - | 1.05 | 1.97 | 0.92 | 4.25 | - |
| 配 当 金 | 10.05 | 11.40 | 11.30 | 3.83 | 83.79 | 3.66 | 25.47 | 51.01 | 1.78 |
| 法人税充當金 | 20.03 | 13.75 | 14.19 | 7.71 | - | 18.90 | 10.70 | 14.92 | 17.61 |
| 移越利益剩餘金 | 22.80 | 7.79 | 8.84 | 1.24 | 1.46 | 37.57 | 2.21 | 8.20 | 55.51 |

(表 11) 利益剩餘金處分の國際比較
(製造業)

| | (%) | |
|---------|-------|-------|
| | 韓國 | 日本 |
| 内部留内 | 64.24 | 17.39 |
| 利益準備金 | 8.98 | 4.42 |
| 任意積立金 | 55.26 | 12.97 |
| 在外配分 | 12.73 | 37.01 |
| 賞與金 | 1.42 | 0.71 |
| 配當金 | 11.30 | 36.30 |
| 法人税充當金 | 14.19 | 32.85 |
| 移越利益剩餘金 | 8.84 | 12.75 |

註: 日本은 1963年 上半期 主要企業

財務構成의 세 側面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資産構成

製造業의 資産構成은 流動資産 49.56% 固定資産 50.44% 로서 前년에 比하여 流動資産이 9.29% 減少된 反面에 固定資産은 11.17%의 增加를 示顯하였다. 鈷業에 있어서도 活潑한 施設投資가 繼續되어 固定資産은 前年の 50.69%에서 55.32%로 더욱 強化되었으며 電氣業 亦是 固定資産은 前年보다 18.79%가 增加한 88.84%를 나타내었고 그밖의 建設業과 都小売業은 流動資産對 固定資産의 比率이 各各 55.81% 44.19% 69.68% 對 30.32%로 流動資産의 比重이 큰 反面에 設備中心의 企業活動을 하는 業種特有의 資産構成을 反映하여 運輸業과 「서비스」業의 流動資産對 固定資産의 比率은 各各 17.03% 對 82.97% 23.66% 對 76.34%로 固定資産의 比重이 圧倒적으로 크다.

이러한 全産業 全般에 걸친 資本運用構成의 變動은 첫째 財産

4. 財務構成

(1) 財務狀態

電氣業을 先두로 各産業의 財政規模(總資産 또는 總資本)는 着實한 伸張을 거듭하여 年度中 製造業 64.5% 鈷業 30.4% 電氣業 136.0% 增大되었는바 이를 資産構成 資本構成 資本配分 即

再評價에 의한 帳簿價格의 是正과 둘째 活潑했던 設備投資에 緣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2) 資產構成의 推移

(%)

| | 製造業 | | | 鉱業 |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流動資産 | 49.56 | 54.63 | 48.99 | 44.68 | 49.31 | 50.58 |
| 当座資金 | 11.95 | 12.10 | 11.07 | 12.90 | 17.54 | 9.02 |
| 在庫資産 | 22.57 | 22.62 | 22.91 | 23.65 | 23.48 | 14.17 |
| 其他 | 15.04 | 19.91 | 15.01 | 8.13 | 8.29 | 27.39 |
| 固定資産 | 50.44 | 45.37 | 51.01 | 55.32 | 50.69 | 49.42 |
| 有形固定資産 | 45.50 | 39.86 | 45.02 | 45.80 | 44.47 | 32.45 |
| 無形固定資産 | 0.61 | 0.20 | 0.63 | 3.62 | 1.28 | 1.42 |
| 投資 | 3.25 | 4.43 | 1.21 | 2.28 | 1.57 | 1.64 |
| 其他 | 0.08 | 0.88 | 4.15 | 3.62 | 3.37 | 13.91 |

| | 電氣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流動資産 | 11.16 | 20.53 | 55.81 | 69.68 | 17.03 | 23.66 |
| 当座資金 | 3.54 | 10.26 | 20.16 | 11.74 | 9.18 | 7.65 |
| 在庫資産 | 4.21 | 7.40 | 12.98 | 34.01 | - | 6.29 |
| 其他 | 3.41 | 7.37 | 22.67 | 23.93 | 1.85 | 9.72 |
| 固定資産 | 88.84 | 74.97 | 44.19 | 30.32 | 82.97 | 76.34 |
| 有形固定資産 | 81.74 | 73.48 | 36.23 | 23.48 | 81.76 | 75.93 |
| 無形固定資産 | 6.35 | - | - | 0.02 | 0.33 | 0.22 |
| 投資 | 0.30 | 0.51 | 4.68 | 5.19 | 0.66 | 0.09 |
| 其他 | 0.45 | 0.98 | 3.20 | 1.63 | 0.22 | 0.10 |

(表13) 資産構成의 國際比較

(%)

| | 韓國 | | 日本 | | 美國 | |
|------|----------|----------|----------|----------|----------|----------|
| | 流動 資産 | 固定 資産 | 流動 資産 | 固定 資産 | 流動 資産 | 固定 資産 |
| 製造業 | 49.56 | 50.44 | 54.08 | 45.92 | 52 | 48 |
| 鎔業 | 44.68 | 55.32 | 36.35 | 63.65 | — | — |
| 電氣業 | 11.16 | 88.84 | 8.23 | 91.77 | — | — |
| 建設業 | 55.81 | 44.19 | 80.69 | 19.31 | — | — |
| 都小売業 | 69.68 | 30.32 | 87.23 | 12.77 | — | — |
| 運輸業 | 17.03 | 82.97 | 24.50 | 75.50 | — | — |
| 서비스業 | 23.66 | 76.34 | 29.16 | 70.84 | — | — |

註: 1. 韓國은 1963年度計數

2. 日本은 1963年度上半期計數

3. 美國은 日銀統計局資料依拠

②. 資本構成

年度中 製造業의 資本構成은 他人資本(負債) 47.98% 自己資本 52.02%로서 비로서 自己資本의 他人資本보다 많은 資本構成을 보여 주었으며 鎔業 또한 他人資本 54.41% 自己資本 45.59%로서 아직도 他人資本이 自己資本을 凌駕하고는 있으나 前年에 比하여 상당한 資本構成의 改善이 이루어 졌다. 勿論 이러한 資本源泉의 均衡化가 財産再評價에 依한 價値修正에 影響되고 있는것은 事實이지만 同期間中 資金需要의 一部分이 增資나 内部留保에 依해서 調達됨으로써 企業의 體質改善이 어느程度 進展되고 있다는 點만은 是認하지 않을수 없다. 電氣業에 있어서는 前年度까지의 畸形的인 資本構成 即 他人資本 71.99% 自己資本 28.21%의 不均衡相에서 他人資本 46.42% 自己資本 53.58%로 劃期的인 是正이

實現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1962年6月30日 現在로 實施된 財産再評價의 結果에 依해서 이루어졌으므로 本來의 「資本充實化」와는 달리 解釈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建設業, 都小売業, 運輸業「서비스」業의 自己資本對 他人資本의 比重은 各各 66.77%對33.23% 67.42%對32.58% 35.62%對64.38% 79.32%對20.68%로서 運輸業을 除外한 全産業의 資本源泉은 大體로 均衡狀態에 到達하였다.

(表14) 資本構成의 推移

(%)

| | 製造業 | | | 鉱業 |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他人資本 | 47.98 | 60.54 | 57.16 | 54.41 | 56.98 | 66.67 |
| 買入債務 | 3.89 | 5.93 | 5.48 | 2.94 | 2.77 | 2.11 |
| 借入金 | 24.22 | 31.80 | 33.73 | 23.83 | 26.15 | 27.70 |
| 其他 | 19.87 | 22.81 | 18.40 | 27.64 | 28.06 | 36.86 |
| 自己資本 | 52.02 | 39.46 | 42.39 | 45.59 | 43.02 | 33.33 |
| 資本金 | 33.19 | 23.40 | 26.11 | 19.65 | 23.00 | 5.12 |
| 剩餘金 | 18.83 | 16.06 | 16.28 | 25.94 | 20.02 | 28.21 |

| | 電氣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他人資本 | 46.42 | 71.79 | 33.23 | 32.58 | 64.38 | 20.68 |
| 買入債務 | 3.49 | 12.43 | 3.85 | 4.05 | 3.98 | 5.95 |
| 借入金 | 29.09 | 45.18 | 20.70 | 15.59 | 12.68 | 7.85 |
| 其他 | 13.84 | 14.18 | 8.68 | 12.94 | 47.72 | 6.88 |
| 自己資本 | 53.58 | 28.21 | 66.77 | 67.42 | 35.62 | 79.32 |
| 資本金 | 19.30 | 22.78 | 51.38 | 34.90 | 24.32 | 44.92 |
| 剩餘金 | 34.28 | 5.43 | 15.39 | 32.52 | 11.30 | 34.40 |

(表15) 資本構成의 國際比較

| | 韓 国 | | 日 本 | | 美 国 | |
|-------|-------|-------|-------|-------|------|------|
| | 他人資本 | 自己資本 | 他人資本 | 自己資本 | 他人資本 | 自己資本 |
| 製 造 業 | 49.78 | 52.02 | 70.54 | 29.46 | 35 | 65 |
| 鉦 業 | 54.41 | 45.59 | 74.41 | 25.59 | — | — |
| 電 氣 業 | 46.42 | 53.58 | 66.88 | 33.12 | — | — |
| 建 設 業 | 53.23 | 66.77 | 80.64 | 19.36 | — | — |
| 都小売業 | 32.58 | 67.42 | 90.85 | 9.15 | — | — |
| 運 輸 業 | 64.38 | 35.62 | 72.66 | 27.34 | — | — |
| 서비스業 | 20.68 | 79.32 | 50.56 | 49.44 | — | — |

註: 1. 韓國은 1963年度計數
 2. 日本은 1963年度上半期計數
 3. 美國은 日銀統計局發表資料

③ 資本配分

製造業은 年度中 固定資産 50.44% 에 對應되는 自己資本 50.02% 長期資本(自己資本+固定負債) 66.8% 로서 設備投資가 自己資本의 限度内에서 調達된 資本配分の 適正化가 着實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鉦業에 있어서는 製造業과는 달리 우리나라 企業의 通弊를 그대로 드러내어 固定資産 51.01% 와 自己資本 42.39% 로서 固定設備가 自己資本의 範圍内에서 調達되지 못하고 겨우 長期資本(70.82%)에 依하여 마련되었으며 電氣業 또한 固定資産 88.84% 에 對해서 自己資本은 53.58% 로 겨우 長期資本(93.02%)에 依해서 調達되고 있다. 그리고 建設業을 비롯한 都小売業 「서비스」業에 있어서는 固定資産을 超過하는 自己資本을 具備하여 比較的 健全한 財務狀態를 갖추고 있으며 運輸業은 固定資産 82.97% 自己資本 35.62% 長期資本 88.85% 로서 固定

資産의 比重이 長期資本에 集中하고 있어 餘他産業에 比하여 不健全한 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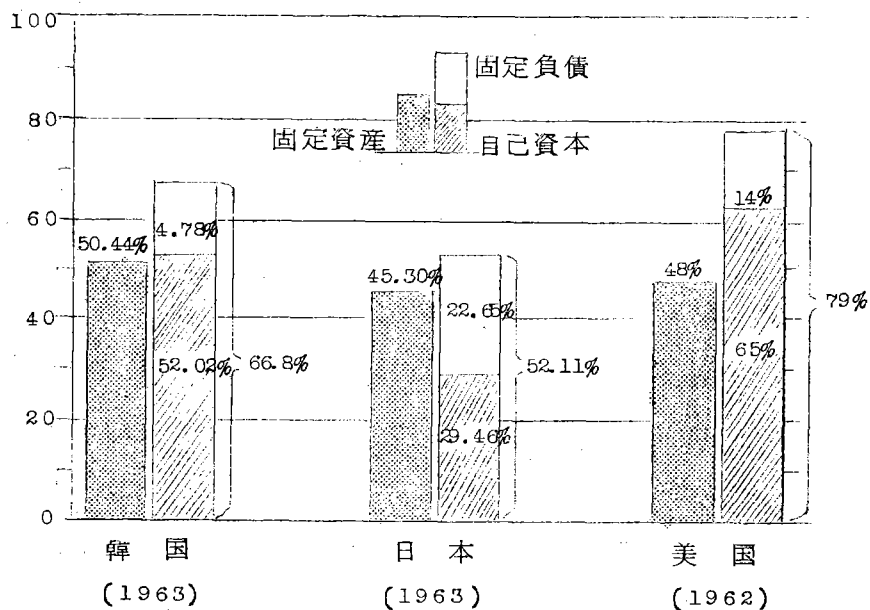
한편 長期資本의 構成內容을 보면 製造業은 自己資本 52.02%에 固定負債 14.78% 鈦業은 自己資本 45.59%에 固定負債 25.23% 電氣業은 自己資本 53.58% 固定負債 39.44% 建設業은 自己資本 66.77%에 固定負債 8.73% 都小売業은 67.42%에 2.75% 運輸業은 35.62%에 53.23% 「서비스」業은 79.32%에 5.21%로서 自己資本은 「서비스」業이 最高率(79.32%)을 運輸業이 最低率(35.62%)을 各各 차지하였고 固定負債는 運輸業이 斷然 首位(53.23%)인 反面 都小売業이 最低位(2.75%)를 占하고 있다.

(表16) 資本의 配分 狀況

| | (%) | | | | | |
|------|-------|-------|-------|-------|-------|-------|
| | 製造業 | | | 鈦業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固定資産 | 50.44 | 45.37 | 51.01 | 55.32 | 50.69 | 49.42 |
| 長期資本 | 66.80 | 57.51 | 64.25 | 70.82 | 69.81 | 70.20 |
| 自己資本 | 52.02 | 39.46 | 42.39 | 45.59 | 43.02 | 33.33 |
| 固定負債 | 14.78 | 17.85 | 21.86 | 25.23 | 26.79 | 36.86 |

| | 電氣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固定資産 | 88.84 | 74.97 | 44.19 | 30.32 | 82.97 | 76.34 |
| 長期資本 | 93.02 | 81.21 | 75.50 | 70.17 | 88.85 | 84.63 |
| 自己資本 | 53.58 | 28.21 | 66.77 | 67.42 | 35.62 | 79.32 |
| 固定負債 | 39.44 | 53.00 | 8.73 | 2.75 | 53.23 | 5.21 |

(表17) 資本配分の国際比較
(製造業)



註: 日本 및 美国은 日本銀行統計局資料에依拠

(2) 財務比率

① 負債比率

企業資本調達의 主要源泉의 하나인 他人資本은 一般的으로 自己資本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 即 負債比率 $(\frac{\text{他人資本}}{\text{自己資本}} \times 100) 100\%$ 以下가 期待되는데 製造業은 年度中 92.22%로서 從來의 宿願을 이루었고 流動負債比率 亦是 63.81%로서 前年에 比하여 他人資本 依存度는 크게 緩和되었다. 이와反面에 鉅業은 前年보다 多少 改善되었으나 同比率이 119.33%로서 여전히 他人資本이 自己資本을 凌駕하는 不均衡狀態에 놓여있다. 그러나 電氣業은 資本構成의 改善을 爲해 資産評價益의 資本轉入과 各種剩餘金の 社

內留保에 부담한 努力을 傾注한 結果 負債比率은 標準比率 100%를 下廻하는 86.63%에까지 到達하였다. 그밖의 運輸業의 180.72%를 除外하고는 大體로 産業全般이 負債比率 100% 以下의 均衡線을 維持하고 있다.

規模別로 보면 製造業은 中小企業이 66.54% 大企業이 95.44%로서 兩者가 모두 「適正線」을 維持하고 있으나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더욱 充實한 自己資本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比率이 標準線에 未達된 業種은 皮革 및 皮革製品의 257.85%를 비롯하여 製材 및 木製品(230.73%) 運輸業(180.72%) 土砂石(152.47%) 印刷 및 出版(150.50%) 等이다.

② 固定比率

圓滑한 企業活動의 遂行을 위하여서는 最少限 設備만은 自己資本으로 調達하여 不利한 外部的與件의 變動에 甘耐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企業經營의 鐵則」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기 爲하여서는 固定比率 $(\frac{\text{固定資産}}{\text{自己資本}} \times 100)$ 이 100% 以下를 維持하여야 하는데 年度中 製造業은 94.89%로서 標準比率을 上廻하였고 鋌業은 이 比率이 113.44%로서 製造業에 뒤지고 있으나 固定資産의 調達이 長期資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할 程度는 아니다. 그리고 電氣業은 巨大한 固定的設備을 必要로 하는 特有的 性質을 反映하여 同比率이 164.97%를 占하고 있으나 固定長期適合率 $(\frac{\text{固定資産}}{\text{自己資本} + \text{固定負債}})$ 은 95.03%에서 抑制되고 있어 資金運用面의 蹉跌은 謀免하였다. 그밖에 建設業은 同比率이 61.40% 都小売業은 42.55% 「써어비스」業은 91.11%로서 무난한 편이나 運輸業은 232.20%로서 産業中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으나 固定長

期適合率은 100% 以下線에서 저지되고 있다.

이를 規模別로 보면 中小企業 89.91% 大企業 95.44%로서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모두 合理的인 資本配分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中小企業이 上位에 있다.

이 比率이 適正水準에 到達하고 있는 業種은 化学및化学製品 42.12%를 비롯하여 靴類 衣服및裝身品 (51.68%) 電氣機器 (64.05%) 石油및石炭製品 (65.39%) 金屬製品 (68.98%) 고무製品 (69.06%) 等이다.

③ 流動比率

企業資本中 條件附資本인 他人資本에 對해서는 充分한 支拂能力 即 一般的으로 流動負債(短期負債)의 2倍程度의 流動資産(支拂準備資産)을 保有함이 所要스러우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流動比率

$$\left(\frac{\text{流動資産}}{\text{流動負債}} \times 100 \right)$$
 이 200% 以上을 維持하여야 하는데 製造業은

同比率이 149.28%로서 支拂能力은 前年보다는 多小 強化되었으나 아직도 標準線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鉸業은 製造業과는 反對로 153.11%로서 前年에 비해 低下傾向을 보였고 電氣業은 159.85%로서 前年水準을 上廻하였으나 支拂準備資産에 對한 質的檢討를 考慮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標準線에 未及한 狀態이다. 其他 運輸業(152.77%) 「써어비스」業(152.86%)亦是 滿足할만한 狀態가 아니며 다만 建設業(227.75%)과 都小瓦業(233.61%)만이 標準線을 上廻함으로써 良好한 財務流動性을 나타내었다.

支拂能力의 良否 및 展望을 間接的으로 測定하는 売出債權回轉率과 買入債務回轉率을 對比하여 보면 電氣業 運輸業 써어비스業을 除外한 製造業 鉸業 建設業 都小瓦業等은 買入債務回轉率이 売出債權回轉率보다 上位에 있어 支拂能力을 不斷히 威脅하고 있다.

(表18) 主要財務比率

(%)

| | 製造業 | | | 鉱業 |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負債比率 | 92.22 | 153.47 | 135.91 | 119.33 | 132.47 | 200.05 |
| 流動負債比率 1) | 63.81 | 108.19 | 84.34 | 64.00 | 70.19 | 89.42 |
| 固定比率 | 94.89 | 112.77 | 105.34 | 113.44 | 110.01 | 106.56 |
| 固定長期適合率 2) | 73.89 | 77.63 | 69.50 | 57.67 | 67.72 | 50.59 |
| 流動比率 | 149.28 | 127.78 | 132.39 | 153.11 | 163.34 | 169.76 |
| 当座比率 3) | 35.99 | 28.35 | 31.26 | 44.18 | 58.09 | 30.27 |

| | 電気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サービス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負債比率 | 86.63 | 254.50 | 49.77 | 48.31 | 180.72 | 20.68 |
| 流動負債比率 1) | 13.03 | 66.62 | 36.70 | 44.24 | 31.30 | 15.47 |
| 固定比率 | 164.97 | 262.30 | 61.40 | 42.55 | 232.30 | 96.11 |
| 固定長期適合率 2) | 95.03 | 91.11 | 54.30 | 40.89 | 93.14 | 90.20 |
| 流動比率 | 159.85 | 133.18 | 227.75 | 233.61 | 152.77 | 152.86 |
| 当座比率 3) | 50.63 | 54.58 | 82.26 | 39.35 | 82.38 | 49.42 |

註: 1) $\frac{\text{流動負債}}{\text{自己資本}} \times 100$ 2) $\frac{\text{固定資産}}{\text{自己資本} + \text{固定負債}} \times 100$

3) $\frac{\text{当座資産}}{\text{流動負債}} \times 100$

(表19) 売出債権回転率と買入債務回転率

(回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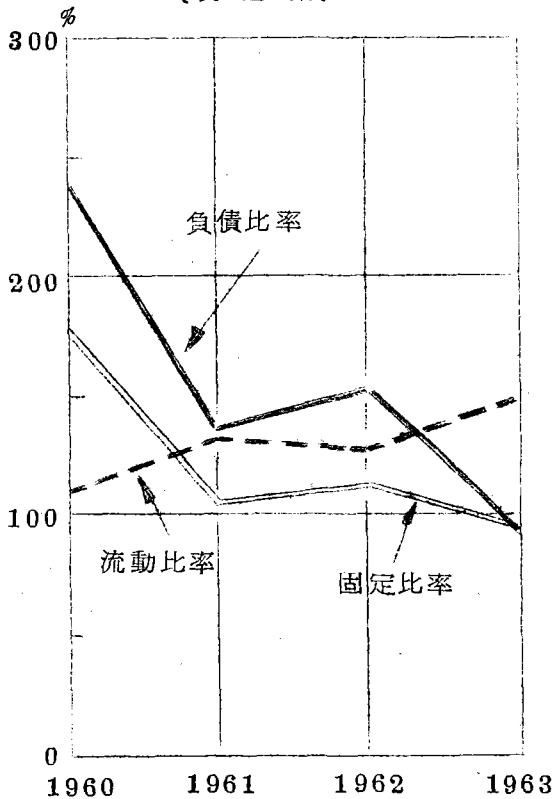
| | 製造業 | | | 鉱業 | | |
|------------|-------|-------|-------|-------|-------|-------|
| | 1963 | 1962 | 1961 | 1963 | 1962 | 1961 |
| 売出債権回転率 1) | 16.28 | 16.24 | 14.69 | 19.23 | 12.27 | 29.85 |
| 買入債務回転率 2) | 27.54 | 21.15 | 18.99 | 43.12 | 42.80 | 56.25 |

| | 電氣業 |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 1963 | 1962 | 1963 | 1963 | 1963 | 1963 |
| 売出債権回転率 1) | 20.91 | 18.40 | 17.73 | 32.51 | 13.62 | 18.26 |
| 買入債務回転率 2) | 4.40 | 2.72 | 46.67 | 44.03 | 9.86 | 14.63 |

註: 1) $\frac{\text{売出額}}{\text{外上売出金} + \text{받어들음}}$

2) $\frac{\text{売出額}}{\text{外上買入金} + \text{支払어음}}$

(表 20) 主要財務比率의 推移
(製造業)



5. 投資動向과

資金調達

資金の運用과 源泉表에 依하여 資金의 需給規模를 보면 年度中 製造業은 64.51% 鉱業은 30.34% 電氣業은 136.04%의 上昇을 가져왔는데 이를 構成比變動에 依한 資金需要(運用)와 資金調達(源泉)의 兩面에서 動態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資金需要

投資動向을 보면 年度

中 各産業이 다같이 新規設備 및 施設改替에 따르는 活潑한 投資動向을 反映하여 製造業의 資金需要規模(資金運用)는 前年보다 64.51% 增加하였는데 그內容을 보면 設備投資 및 在庫投資의

構成比가 各各 16.27% 12.43% 增大되는 反面에 企業間信用(売出債權)과 其他部門의 比重이 減少되었다. 그리고 特히 企業活動의 景氣變動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在庫投資中 原材料는 同期間에 있어서 原材料導入展望이 不透明해진데 대한 反射作用으로 製品을 上廻하는 8.88%의 큰 比重을 차지하는 肥大現狀을 가져왔다. 한편 鈷業의 在庫는 前年水準에 머물렀으며 固定資産만은 設備代替 및 固定資産의 再評價에 依해서 29.03%의 構成比增大를 보였고 電氣業에 있어서는 無制限送電을 目標로한 電源開發에 所要되는 巨大한 設備投資 및 財産再評價差益으로 因하여 資金需要規模가 136.04%나 伸長되었으며 이에따라 設備의 比重도 增大되었다.

結局 年度中 固定資産에 對한 再評價差益의 追加計上과 積極的인 施設擴張이 이루어 짐으로써 設備投資의 比重이 膨脹하였고 아울러 企業間信用 및 現金 有價證券等 流動資本部門의 比重이 顯著히 減縮되어 資金運用 構成面에 새로운 樣相을 招來하였다.

(2) 資金調達

資金調達을 源泉別로 보면 製造業은 内部資金의 比重이 前年에 이어 繼續的인 減少를 보아 겨우 12.17%의 水準에 머물렀는데 이는 1962年度에 實施를 본 資産再評價에 依한 再評價積立金等 剩餘金の 資本轉入에 緣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外部資金은 增資 및 再評價積立金の 資本轉入에 依한 株式資本의 增加와 在庫投資에 對應되는 短期借入金의 伸長으로 繼續 主要資金調達源泉의 자리를 차지 하였다. 鈷業은 各種剩餘金の 内部留保 및 減價償却의 增大로 内部資金의 比重이 27.26% 大幅的인 上昇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도 外部資金이 70% 이상을 占함

으로써 資金源泉의 不健全性を 드러냈다. 그리고 電氣業은 財産再評價差額中 무려 124億원이나 資本剩餘金으로 社內에 留保함으로써 剩餘金의 内部留保가 内部資金의 主軸을 이루었고 이에따라 内部資金의 比重은 前年에 比하여 606.46%나 增加한 34.97%를 차지하였다. 한편 從來 資金調達에서 圧倒的인 位置를 차지 하였던 外部資金은 資金需要規模의 膨脹(内部留保의 急増이 主因)에 對한 反作用으로 그 構成比가 前年보다 31.58% 減少한 65.03%를 나타냄으로써 상당한 改善을 보았으나 内部資金이 資金源泉에서 50% 以上을 占하고 있는 歐美先進國의 理想的水準에 到達하기에는 아직 遼遠하다 하겠다.

끝으로 資金需給狀態를 보면 投下한 資本의 回收가 더딘 設備資金需要와 여기에 對應되는 長期資金源泉(内部資金+株式資本+長期借入金)의 均衡만은 維持되고 있다.

(表21) 資金의 運用과 源泉表
(1963)

(%)

| | 製造業 | | 鎂業 | | 電氣業 | |
|--------|--------|----------|--------|----------|--------|--------|
| | 構成比 | 增減率 | 構成比 | 增減率 | 構成比 | 增減率 |
| 1. 運用 | 100.00 | 64.51 | 100.00 | 30.34 | 100.00 | 136.04 |
| 固定資産 | 51.09 | 16.27 | 56.63 | 29.03 | 88.78 | 25.48 |
| 有形固定資産 | 47.56 | 14.70 | 51.33 | 32.05 | 82.35 | 17.21 |
| 無形固定資産 | 0.59 | △50.42 | 3.25 | 1,525.00 | 6.14 | - |
| 投資 | 3.14 | 115.07 | 2.05 | △52.67 | 0.29 | △40.82 |
| 在庫資産 | 24.51 | 12.43 | 21.25 | △3.67 | 4.08 | △42.29 |
| 製品 | 6.23 | △31.46 | 9.88 | 53.65 | - | - |
| 原材料 | 8.88 | 5,450.00 | 0.09 | △99.06 | - | - |
| 其他 | 9.40 | △30.02 | 11.28 | 86.75 | 4.08 | △42.29 |
| 売出債權 | 6.36 | △29.09 | 5.94 | △21.02 | 0.71 | △6.58 |
| 其他 | 18.04 | △22.95 | 16.18 | △40.16 | 6.44 | △68.46 |

| | 製造業 | | 鉱業 | | 電気業 | |
|-------|--------|--------|--------|---------|--------|----------|
| | 構成比 | 増減率 | 構成比 | 増減率 | 構成比 | 増減率 |
| 2. 源泉 | 100.00 | 64.51 | 100.00 | 30.34 | 100.00 | 136.04 |
| 内部資金 | 12.17 | △28.83 | 27.26 | 194.06 | 34.97 | 606.46 |
| 内部留保 | 8.76 | △11.87 | 17.06 | 151.62 | 31.67 | 5,456.14 |
| 減価償却 | 3.41 | △52.37 | 10.20 | 309.63 | 3.30 | △ 24.66 |
| 外部資金 | 87.83 | 5.95 | 72.74 | △19.83 | 65.03 | △ 31.58 |
| 短期借入金 | 14.35 | 164.76 | 5.25 | △70.07 | - | - |
| 長期借入金 | 9.05 | △52.01 | 16.16 | 19.88 | 28.13 | △ 34.89 |
| 買入債務 | 3.76 | 46.30 | 2.65 | △ 54.15 | 3.37 | △ 71.66 |
| 株式 | 32.06 | 50.16 | 17.64 | △23.31 | 18.67 | △ 14.28 |
| 其他 | 28.61 | △17.55 | 31.04 | 0.36 | 14.85 | △ 18.32 |

(表 22) 各国企業の資金調達状況

(%)

| | 韓国 | 日本 | 美国 | 英国 | 西独 |
|------|--------|--------|--------|--------|--------|
| 内部資金 | 9.26 | 28.57 | 69.0 | 54.8 | 59.0 |
| 内部留保 | 6.36 | 6.64 | 15.3 | 22.2 | 26.6 |
| 減価償却 | 2.89 | 21.93 | 53.7 | 32.6 | 32.4 |
| 外部資金 | 90.74 | 71.43 | 31.0 | 45.2 | 41.0 |
| 株式 | 30.15 | 5.01 | 5.4 | 28.0 | 2.3 |
| 社債 | - | 16.99 | 10.8 | 5.9 | 3.1 |
| 借入金 | 26.95 | 18.95 | 5.8 | 4.3 | 18.8 |
| 其他 | 33.64 | 13.44 | 9.0 | 7.0 | 16.8 |
| 合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註：1. 韓国(製造業) 1963年度計数

2. 日本 1963年 上半期計数

3. 美国 1956~1960年平均

4. 英国 1957~1960年平均

5. 西独 1958~1960年平均

(表 23) 製品과 原材料의 在庫期間

| | 製品 1) | 原材料 2) |
|------|-------|--------|
| 製造業 | 0.73 | 1.83 |
| 鎂業 | 1.04 | 0.04 |
| 電氣業 | 0.39 | - |
| 都小売業 | 2.10 | - |

註: 1) $\frac{\text{製品在庫額}}{\text{売出額} \div 12}$

2) $\frac{\text{原材料在庫額}}{\text{原材料消費額} \div 12}$

6. 生産性과 賃金水準

(1) 生産性

勞動生産性 ($\frac{\text{附加價值額}}{\text{常時從業員數}}$)은 年度中 製造業 150千원 鎂業 151千원 電氣業 340千원 建設業 278千원 都小売業 545千원 運輸業 90千원 「서비스」業 318千원으로서 都小売業이 首位를 占하였고 運輸業이 最下位를 차지하였다.

이를 規模別로 보면 大企業이 152千원 中小企業이 135千원으로서 大企業이 上位에 있으나 前年에 比하여 規模間의 隔差가 많이 短縮되었다.

그리고 比較的 높은 勞動生産性を 나타낸 業種은 都小売業 545千원을 비롯하여 電氣業 (340千원) 飲料品 (312千원) 建設業 (278千원) 食料品 (272千원) 化學및 化學製品 (271千원) 紙類및 紙類製品 (269千원) 等이다.

다음으로 勞動生産性의 關聯指標을 보면 小數의 人員으로서도 比較的 巨大한 設備의 効率的인 利用이 可能한 都小売業의 勞動裝備率 ($\frac{\text{有形固定資産} - \text{建設假計定}}{\text{常時從業員數}}$) 과 設備投資効率

($\frac{\text{附加價值額}}{\text{有形固定資産}-\text{建設假計定}}$)이 比較的 높아 他産業보다 훨씬 上位에 있으며 老大的 近代的設備을 갖추는데 巨額의 資本이 投入되어 資本集約的으로 生産이 이루어지는 電氣業이 資本集約度 ($\frac{\text{負債}+\text{資本}}{\text{常時從業員數}}$)와 機械裝備率 ($\frac{\text{機械裝置}}{\text{常時從業員數}}$)에 있어서 高率을

(表 24) 生産性에 對한 關聯 指標

| | 製造業 | 鎔業 | 電氣業 | 建設業 | 都小売業 | 運輸業 | 서비스業 |
|------------|--------|--------|-------|--------|----------|----------|--------|
| 勞動生産性(千圓) | 150 | 151 | 340 | 278 | 545 | 90 | 318 |
| 勞動裝備率(千圓) | 221 | 97 | 2,276 | 183 | 429 | 256 | 277 |
| 設備投資効率(%) | 67.88 | 155.55 | 14.96 | 152.29 | 127.13 | 35.17 | 58.60 |
| 資本集約度(千圓) | 588 | 224 | 3,556 | 543 | 2,035 | 965 | 365 |
| 總資本投資効率(%) | 30.89 | 67.07 | 9.58 | 51.29 | 26.79 | 9.32 | 44.41 |
| 機械裝備率(千圓) | 113 | 24 | 1,580 | 42 | 45 | 2 | 56 |
| 機械投資効率(%) | 240.77 | 631.55 | 21.54 | 668.48 | 1,199.25 | 4,088.28 | 289.04 |

註: ① 勞動生産性 = 勞動裝備率 × 設備投資効率 = 資本集約度 × 總資本投資効率
 = 機械裝備率 × 機械投資効率

$$\begin{aligned} \frac{\text{附加價值額}}{\text{常時從業員數}} &= \frac{\text{有形固定資産}}{\text{常時從業員}} \times \frac{\text{附加價值額}}{\text{有形固定資産}} = \frac{\text{總資本}}{\text{常時從業員數}} \times \frac{\text{附加價值額}}{\text{總資本}} \\ &= \frac{\text{機械裝置}}{\text{常時從業員數}} \times \frac{\text{附加價值額}}{\text{機械裝置}} \end{aligned}$$

나타내어 다같이 높은 水準의 生産性을 示顯하였으며 鎔業은 資本集約度나 總資本投資効率 ($\frac{\text{附加價值額}}{\text{負債}+\text{資本}} \times 100$) 等 關聯指標가 모두 前年과 비슷하여 生産性(151千圓) 亦是 前年과 큰差가 없었다 鎔業의 이러한 生産性의 鈍化原因은 鎔床의 深化에도 不拘하고 作業方法의 改善이 뒤따르지 못하므로써 生産量을 上廻하는 速度

로 勞動投入量이 增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2) 賃金水準

(表 25) 勞動生産性의 國際比較

| | (弗) | | |
|------|------------|------------|------------|
| | 韓國 1963 | 日本 1963 | 美國 1951 |
| 製造業 | 1,153 | 3,783 | 6,538 |
| 鉦業 | 776 | 2,636 | - |
| 電氣業 | 615 | 7,644 | - |
| 建設業 | 2,138 | 5,411 | - |
| 運輸業 | 692 | 4,236 | - |
| 都小売業 | 4,192 | 5,636 | - |
| 서비스業 | 1,245 | 2,155 | - |

賃金水準($\frac{\text{人件費}}{\text{常時從業員數}}$)

은 建設業 187千원 都小売業 138千원 電氣業 137千원 鉦業(104千원) 「서비스」業 90千원 製造業(59千원) 運輸業 42千원의 順位를 보이고 있다.

한편 製造業과 鉦業의 경우 當部에서 月別로 調査하고 있는 鉦工業生産從業員給與(製造業 39.7千원

註: 1. 日本은 日銀統計局發表資料(1963年度上半期分)

2. 弗當換算率은 韓國130원, 日本360円

鉦業 59.8千원)와의 對比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製造業과 鉦業이 다함께 事務系의 賃金이 높은 反面에 勞務系가 낮은 賃金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規模別로는 中小企業 67千원 大企業 58千원으로서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高水準을 維持하였다.

業種別로는 建設業의 187千원을 비롯하여 都小売業(138千원) 電氣業(137千원) 輸送用機器(125千원) 非金屬(122千원) 石炭(113千원) 등이 比較的 높은 水準을 보였다. 그리고 勞

動所得分配率($\frac{\text{人件費}}{\text{附加價值額}}$)을 보면 製造業이 39.64%로서 前年

度の 構成比와 비슷하였고 鉦業이 69.33%로서 前年(66.82%)

에 比하여 多少 높아졌으나 電氣業은 40.35%로서 오히려 前年 42.79%보다 낮아졌다.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것은 附加價值生産額中 減價償却費의 增大라 할수 있는데 製造業과 電氣業은 前年보다 40%以上の 增加率을 보여 그比重은 各各 11.43% 35.62%가 되었고 鉦業은 12.54%의 增加率을 보여 16.95%가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財産再評價와 新規投資等으로 固定資産이 膨大해진데 主因이 있으나 그밖에도 各産業이 積極的인 減價償却을 実施함으로써 「内部資金에 依한 資本의 充實化」에 努力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

(表 26) 賃金水準과 勞動所得分配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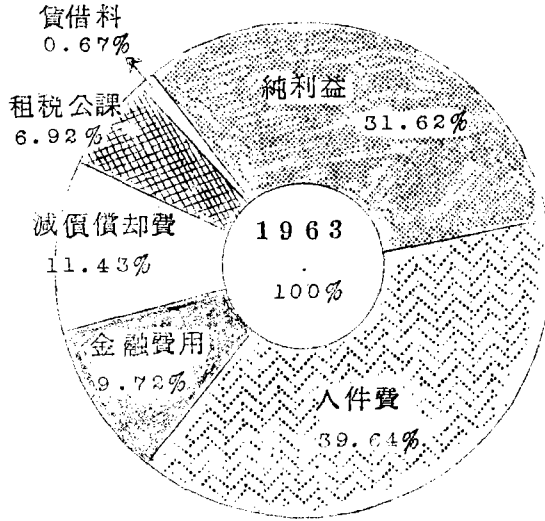
(1963)

| | 製造業 | 鉦業 | 電氣業 | 建設業 | 運輸業 | 都小売業 | 서비스業 |
|-------------|-------|-------|-------|-------|-------|-------|-------|
| 賃金水準(千圓)① | 59 | 104 | 137 | 187 | 42 | 138 | 90 |
| 勞動所得分配率(%)② | 25.10 | 69.33 | 40.35 | 67.28 | 46.71 | 25.33 | 55.22 |

註: ① $\frac{\text{人件費}}{\text{常時従業員數}}$

② $\frac{\text{人件費}}{\text{附加價值額}}$

(表 27) 附加價值額の構成比
(製造業)



(表 2.8) 附加價值生産額構成の国際比較

(%)

| | 製造業 | | 鉱業 | | 電気業 | |
|-------|--------|--------|--------|--------|--------|--------|
| | 韓国 | 日本 | 韓国 | 日本 | 韓国 | 日本 |
| 純利益 | 31.62 | 20.62 | 10.36 | 5.13 | 15.95 | 19.25 |
| 人件費 | 39.64 | 39.77 | 69.33 | 59.36 | 40.35 | 22.31 |
| 金融費用 | 9.72 | 17.01 | 2.33 | 17.71 | 7.61 | 25.45 |
| 減価償却費 | 11.43 | 18.99 | 16.95 | 16.13 | 35.62 | 30.15 |
| 賃借料 | 6.67 | 1.26 | 0.21 | 0.87 | 0.11 | 1.27 |
| 租税公課 | 6.92 | 2.35 | 0.82 | 0.80 | 0.36 | 1.57 |
| 合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註：日本は 日銀統計局資料(1963年度主要企業上半期分)

(韓国銀行調査月報才18卷才7号에서転載)